

불법 촬영·딥페이크 피해 교사 법률 지원 ‘공백’

‘신체분비물 테러’, 성범죄 적용되나 경찰 “법리 검토… 구체적인 혐의 특정 안돼”

피해 교사들 변호사 조력 없이 경찰 조사 출석
사건당 변호사비 330만원 제한 개선 거듭 요구
교사노조 재산정 이의 제기·교육감 면담 촉구

최근 제주의 한 중학생이 교사를 불법 촬영하고 딥페이크 방식의 합성물을 제작한 사건과 관련해 제주도교육청의 피해 교사 법률 지원에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교사노동조합은 14일 입장

문을 내고 해당 사건의 피해 교사들이 같은 날 도교육청의 변호사 지원 없이 경찰 조사에 출석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제주교사노조는 사건 1건당 전체 330만원으로 제한된 변호사비 지원 문제를 거론했다. 앞서 피해 교사

들은 사건 확인 직후 학교안전공제회에 교원보호공제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했는데, 형사고소 변호사비를 ‘사건 전체 합계 330만원’으로 한정한다는 회신을 받았다. 이에 교사노조는 지난 3일 공제회에 재산정 이의서를 제출해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교사노조는 “피해 교사 1인에게 돌아가는 금액은 수십만 원 소액으로, 고소장 작성부터 피해자 진술 입회, 수사 종결까지의 고소 대리

를 맡아줄 변호사는 없다”며 “피해 교사들은 교육청과 학교안전공제회 제주지부에 수차례 지원을 요청했지만, 결국 교육청 지원 변호사의 조력 없이 조사에 응하고 변호사 동행 없이 교권보호위원회에 홀로 출석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피해 교사들의 교육감 면담 요청이 두 차례 모두 거절됐다고 주장하며 교육감과의 면담도 요구했다.

김지은기자 jieun@ihalla.com

부하 직원에 갑질 의혹 제주경찰, 경감 2명 조사

현직 경찰관들의 직장 내 갑질 등 비위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14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달 모 지구대 B경감이 부하 직원에게 갑질과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B경감과 신고자를 분리하기 위해 B경감을 다른 곳으로 전보 조치하고 절차에 따라 감찰을 진행하고 있다.

또 최근 제주청 소속 A경감이 같은 부서 부하 직원에게 갑질 발언을 했다는 신고도 들어왔다. 경찰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조사중”이라고 말했다. 박소정기자

학교 폐교철 몰래 빼돌린 50대 공무원 검찰 송치

고등학교에서 폐교철을 빼돌린 50대 교육공무원이 검찰로 넘겨졌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최근 불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월쯤 제주시의 한 고등학교에서 교육행정직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학생 실습과정에서 나온 폐교철 약 400~600kg (90여 만원 상당)을 몰래 빼돌려 팔아넘긴 혐의를 받는다.

박소정기자



14일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기자회견을 열고 2027년도 적정 생활임금 시급으로 1만3500원을 제시했다.

양유리기자

“2027년도 생활임금 시급 1만3500원으로” 민주노총 제주, 올해보다 11.48% 오른 시급 제시

제주지역 노동단체가 2027년도 적정 생활임금으로 1만3500원을 제시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14일 오전 제주시의회 도민카페에서 ‘제주도 생활임금 인상 및 제도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민주노총 제주가 제시한 내년 적정 생활임금은 시급 1만3500원, 월급 282만1500원이다. 이는 현재 생활임금의 시급 1만2110원 대비 11.48%, 월급은 29만510원 인상된 금액이다.

이는 국가데이터처의 ‘가계동향

조사’에 따른 기본 적정생계비에 올해 물가상승률과 내년도 물가상승 전망치, 제주도 평균 가구원 수 (2.26명)를 반영한 뒤 현재 광역자치단체 중 상위권 (광주, 1만3303원)을 적용해 계산한 값이다.

민주노총은 “제주도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는 2만1353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며 “생활임금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17곳 중 10번째에 위치하고, 평균 (1만2233원)보다 낮다”고 했다.

이어 “2027년 제주도 생활임금은 노동자의 적정생계비를 반영하기

위한 금액이 보장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제주도의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예산 확보를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또 “생활임금이 노동자의 실제 생활 여건과 동떨어진 기준으로 결정되지 않도록 생활임금위원회 구성에서 노동자 참여를 50% 이상 보장해야 한다”며 “생활임금 적용 기업과 사업장에 공공계약 참여와 계약 우대 등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더불어 민간기업이 자발적으로 제주도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생활임금 서약제’ 도입과 청년들의 임금 현실 개선을 위한 ‘제주청년생활임금제’ 도입 등을 촉구했다.

양유리기자

지난 4월 제주에서 발생한 초등학교 교사 체액 테러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기존 재물손괴죄에 더해 성범죄 적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서귀포경찰서 등에 따르면 경찰은 건조물 침입 및 재물손괴죄로 입건된 10대 고등학생 A군에 대해 성범죄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법리 검토 중이다.

A군은 지난 4월 27일 오후 6시쯤 서귀포시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 침입해 여성 교사가 사용하는 텀블러에 자신의 신체분비물을 묻힌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6월 4일 오후 9시40분쯤 같은 초등학교 교실에 들어가 교사의 의자에 소변을 본 혐의도 받는다.

당초 경찰은 학생이 권한 없이 초등학교 교실에 들어간 행위에 대해 건조물침입죄, 피해자의 텀블러와 의자에 오물을 남겼으므로 재물손괴죄를 적용해 수사해 왔다.

다만 피해자와 직접적인 신체 접

촉이 없어 ‘성적 목적’을 입증하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강제 추행 등 성범죄는 적용하지 않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7월 여성 카페 업주의 음료에 자신의 체액을 타 마시게 한 사건에 대해 ‘강제추행죄’가 적용된다고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파기환송했다.

외형상으로 물건에 대한 행위로 보일 수 있지만 실질적인 행위의 목적이 피해자에게 체액이 섞인 커피를 마시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체액 테러’가 강제추행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오면서 경찰도 최근 법리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귀포경찰서 관계자는 “대법원 판례를 참고해 건조물 침입 및 재물손괴죄 이외에 적용할 수 있는 혐의를 검토하고 있다”며 “아직까지 구체적인 혐의를 특정해 수사하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양유리기자 glassy38@ihalla.com

“성매매 산업 키우는 성매매처벌법 개정을”

제주여성인권연대 등 전국 릴레이 제주 기자회견

성매매방지법과 성매매처벌법 시행 22년을 앞두고 성매매 여성을 성판매자로 규정해 처벌하는 현 성매매처벌법을 전면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제주여성인권연대와 제주여성회, 제주여성권상당소·시설협의회,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는 14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성매매처벌법 전면개정을 위한 전국 집중 릴레이 제주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전진숙 국회의원 대표발의로 지난달 26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이 22대 국회에 발의됐다.

개정안은 성매매 여성을 처벌하는 현행법 구조에서 벗어나 ▷‘성

매매’를 ‘성매수’로 변경 ▷처벌대상을 ‘성매매 행위자’에서 ‘성매수자’로 전환 ▷보호대상을 일부 ‘성매매 피해자’에서 모든 ‘성매수대상자’로 확대했다.

이들 단체는 “현행법은 성매매에 놓인 여성을 ‘피해자’와 ‘성판매자’로 구분, 피해자로 인정되지 않은 여성을 처벌하는 구조는 성매매의 구조적 문제를 여성 개인의 책임으로 돌린다”며 “성매매 현장에서 어떤 폭력과 통제가 있었는지, 누가 성을 구매하고 알선해 부를 축적했는지 제대로 묻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 6월 중국어 사이트와 메신저를 이용한 제주 성매매 알선사건이 연이어 보도됐다”며 “온라인 사이트와 메신저를 통한 광고와 예약, 여성의 모집과 이동, 성매매 장소의 제공·관리 등 지역 내 불법 영입이 서로 연결된 성매매 알선 조직 존재가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양유리기자

만감류 매달기는 다인굴고리!



쉬운 높이조절

쉽게 높이조절되는 굴고리

굴고리 재사용해 매달은 모습

굴고리 작업세트 구성

8.5cm 굴고리 + 3cm 안파고정판 + 안파밴드 = 굴고리 작업세트

굴고리+고정판+안파밴드를 셋트로 구입해 사용합니다. 나무 1개에 4-6세트 사용됩니다. 굴고리에 밴드끈의 한쪽을 묶고, 반대쪽에 고정판을 묶은 후 설치해 매달기 고리로 활용합니다.

054-652-3725 www.dainfine.com

제주 각 지역 농협에 절찬 판매중

씨니트묘목분양

★만감류

- 씨니트 - 한라봉 2년 - 카라 2년
- 달콤, 미래향, 레드스타, 우리향, 맛나봉

‘씨니트’묘목 불법 유통 금지 안내

■ ‘씨니트’(품종보호 제6039호)는 「한라종묘」에서 품종보호권자 현성익(서귀포시 상호동)으로부터 2041년까지 전용실시권을 받은 품종입니다.

■ 이에 따라, 타 업체에서는 묘목을 생산·판매 할 수 없고, 농가에서도 씨니트 점수를 불법 채취해서 자가묘목, 고접, 점수 나눔 행위는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의 사항을 위반한 종자업체 또는 농가에서는 저희 「한라종묘」로 연락을 주시면, 혐의 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 불법 유통이 확인될 때에는 고발당할 수 있습니다.

■ 다이마사키, 레드한라봉, 흥한라봉, 붉은한라봉 등은 (품종명이나) 생판신고, 안된 품종이며, 후에 씨니트로 밝혀지면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불법 유통한 묘목으로 생산된 과일은 씨니트란 이름으로 유통을 못합니다. (적발시 농가나 유통업자나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유통 조치 현황 · 농가 : 42 농가 · 업체 : 3개 업체

한 라 종 묘

종자업 등록번호 : 제18-서귀포-2005-20-01호

농장주소 : 서귀포시 표선면 토산리 1000-3, 연락처 : 010-3696-2057

감굴 신품종 분양

2027년 공급분 품종안내

만감류

우리향, 달코미, 맛나봉, 레드스타, 설향, 미래향, 사라향, 한라봉, 아나마스, 레몬, 탐나는봉

온 주

궁천, 유라조생, 하례조생, 흥진조생, 고림, 오하라베니

농장위치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850-6번지 (평화로 서광주유소에서 모슬포 방향 300M큰도로변)

종자업등록번호 : 18-2003-20-09

자원종묘

대표 : 010-2691-1883